

---

# 2021년 제25호 방송심의보고서

---

2021. 6. 18. ~ 6. 24.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방송일자	2021. 6. 18.	시청률	0.003

### 【총 평】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를 갖춘 한국 차(茶)의 명산지, 전남 보성에서 “녹차 향에 빠지다”라는 주제로 대금 연주를 들려주었다. 유월의 녹음과 어우러진 녹차 밭 그리고 보성의 녹차 향은 대금 소리에 젖어들어 명화를 보는 듯했다. 녹차 명장이 운영하는 장광 마을의 야생 녹차밭을 찾아 일일이 손으로 수확하는 현장을 담아내고 보성 녹차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도 소개했다. 시청자들에게 힐링을 선사한 아름다운 영상은 몰입도를 높여, 큰 일교차가 주는 진한 녹차 풍미를 영상으로 잘 전달해주었다.

### 【구성 및 내용】

전남 보성의 녹차 명인을 찾아 녹차를 수확하고 가공하여 차로 만들어내는 과정과 다도를 즐기는 모습까지 한데 담아냈다. 보성은 우리나라 녹차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며 기후와 토양이 녹차를 생산하기 딱 좋은 곳이라는 정보도 함께 소개하였다. 드넓은 녹차 밭 전경과 함께 새순이 돋은 녹차 수확 현장을 소개하였는데, 섬세하게 녹차를 수확하고 가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다루면서 명인의 정성까지 함께 다루어 인상 깊었다. 녹차 재배의 기술화된 현재 상황을 보여주었는데, 수작업으로 녹차잎을 따던 시대가 가고 농기계로 차잎 새순을 따는 현재의 모습을 전하였다. 녹차 따는 소리, 차 따르는 소리, 계곡 물 소리, 녹차를 덪는 소리 등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고 몰입도를 높였다. 장광마을 야생 녹차밭이 소개되면서 녹차명인이 등장해서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녹차를 한 잎 한 잎 정성 들여 손으로 수확하고 일일이 수작업을 거쳐 녹차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소개되어 전반부에 기계로 대량으로 수확했던 장면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주었다. 차잎을 따면서 세 사람이 모여 녹차를 수확할 때만 느끼는 운치를 이야기하는 장면도 인상적이었다. 본격적인 녹차 가공 작업은 명인의 아들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새삼 얼마나 많은 손이 가야 녹차가 완성되는지 알 수 있게 해주었다. 불의 온도와 덪기가 녹차의 맛을 좌우한다는 설명도 곁들여졌다. 명품 야생 녹차 제조 과정은 수작업으로 정성스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여 탄생하게 됨을 보여주었다. 덪고 비비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여 차의 전통성을 지키고 유지시키려는 명장의 소신을 전하였다. 차잎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맛이 날 수 있도록 한다는 명장의 마음가짐이 잘 드러났다. 특히 “오동나무 꽃과 찔레꽃이 활짝 필 때 차 맛은 최고에 달한다”는 녹차 명인의 인터뷰는 프로그램을 통해 차의 풍미를 느끼게 해주었다. 녹차를 수확하고 가공하는 과정이 자칫하면 단조로울 수 있는 작업인데, 다채로운 화면 구성을 한 점도 돋보였다. 넓고 너른 녹차밭의 영상미를 충분히 살려 신록과 자연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진 느낌이 들었다. 몸과 마음이 바쁘고 피로한 현대인들에게 휴식 같은 방송이었으며 아울러 보성 녹차의 전통성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1. 6. 19.	시청률	0.057

### 【총 평】

‘우린 4600만원으로 여유를 샀습니다’ 편에서는 전국을 헤맨 지 5년 만에 마음에 드는 내 집을 마련해 농촌으로 간 40대 초보 귀촌 부부의 시골 마을 정착기를 다뤘다. 농사를 짓지 않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이색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직접 마련한 집을 손질하고 가꾸는 귀촌부부의 생활을 통해 삶의 여유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하였다. 목공을 배워 직접 집안을 수리하고 인테리어하며 내 집살이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이웃과 정을 나누고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시간들을 소개해 프로그램의 개성이 잘 드러났다.

### 【구성 및 내용】

젊은 나이에 도시에 대한 집착을 떨치고 과감하게 귀촌을 결심한 부부의 이유 있는 선택을 가감 없이 그려냈다. 초보 귀농부부의 진솔한 생활상을 통해 귀촌의 동기부여와 이점, 가능성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귀촌 10개월 차와 3년 차 귀촌 부부의 사례를 통해 귀촌 이후 어떤 변화가 오고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해 보여주었다.

또, 부동산 이슈가 요즘 가장 큰 사회적 관심사 중 하나인데, 이와 연결된 내용으로 시작되어 본론에서도 이와 관련한 에피소드가 많아, 시청자들의 주목을 끄는 효과가 있었다. 귀촌 준비를 하면서 유용성을 위해 목공을 배운 주인공은 내 집이 생기고 마음 편하게 다양한 목공기술을 적용하여 집을 꾸밀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만족스럽다고 한다. 또 이웃들과 서로 음식을 주고 받으며 귀촌 부부에게 마음을 열어준 이웃들과의 교류도 보여주었다. 집 구하기, 귀농부부가 꿈꿔온 행복한 삶, 주민과 함께하는 시골 생활 등 일상적인 스토리가 몰입감을 높였다. 만물상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목공작업으로 집을 직접 꾸미고,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아 요리하는 등 일상적인 모습이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제고하였다. 4,600만원으로 지은 집 덕분에 삶의 여유가 생기고 좋은 인연을 만나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이 주인공의 말을 통해 전달되어 설득력 있었다. 30-40대 도시 부부들이 내집마련에 절치부심하는 모습과 대조를 보였다. 지난 5년간 목공일을 배운 주인공은 향후 귀촌생활에서의 생계로서 준비를 하고 있다. 제작한 작품들을 사진을 찍어 인터넷상에 설명을 달아 올리기도 한다. 이를 통해 주인공 남편이 목공 특기를 살려 안정적인 소득으로 이어갈지, 어려움을 딛고 농촌에 살면서 과연 귀촌의 꿈을 이뤄낼지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었다. 부부의 사례를 통해 귀촌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뒤 “시골에서 사는 것이 더 메리트가 있고, 나를 위한 투자의 기회를 얻는 것”에 대한 장점을 부부가 털어놓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이번 방송은 이웃 간의 정과 교류를 집중적으로 보여주었다. ‘그 마을에 녹아드는 것’이 잘 표현되어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1. 6. 20.	시청률	0.000

### 【총 평】

지난 6월 11일~13일에 영국에서 개최된 G7정상회담 내용 중 북한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관한 항목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북한 내의 예상 반응과 G7을 통한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전하였다.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EU 등의 정상과 양자 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안착 과정의 지지와 공감을 하며 대북관계에 대한 서방 유럽 선진국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효과를 얻는 계기였음을 전하였다.

### 【구성 및 내용】

<친독>에서는 G7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58번째 항목의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G7 공동성명 58번째 항목의 주요 사안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 촉구 및 미국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고 북한의 대화 참여와 일본의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발표하고 있음을 전하였다. 58번째 항목의 이슈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북한에 대한 DPRK(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라는 공식적 호칭을 통해 존중감을 표현했다는 점이다. 외교적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 바이든 미 대통령은 강압적인 북한에 대한 표현보다는 우호적인 느낌의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대화와 핵 포기 등에 대해 국제 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국제 평화에 동참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전하였다. 공동성명 원안을 통해 해석하고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며 시청자들에게 G7 정상회담은 주로 어떠한 사안으로 세계 정상 회담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 수 있게 하였다. G7 공동성명 58번 항목 원문을 시청자들에게 제시한 점은 신선했고 전달력을 높여 의미 있으면서도 핵심적인 구성이었다.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 관심과 북한 행보를 살살이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슈텔링>에서는 지난 한미정상회담 중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깜짝 발표한 성김 대북 특별대표 개인사와 과거의 정책성과를 알아보았다. 성김 대표가 주한미국대사로서 활동함과 한국계 아버지의 외교관 경력을 통해 자신도 영향을 받아 일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전하였다. 원래 의사 지망생이었으나 진로를 바꿔 검사로 일을 하게 되었고 세상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자 외교관으로 다시 진로를 전환했다고 설명하였다. 미국 국무부 내에서 한국 언어와 문화를 잘 아는 재목으로 평가받았고, 2008년 상원 청문회를 거쳐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겸 대북특사로 임명되었음을 알려주었다. 화려한 비주얼부터 출신과 국적, 원래 꿈, 북한 전문가가 된 사연과 그가 이룬 성과, 그리고 원번 냉각탑 폭파 현장의 에피소드 등이 다양하게 다루어지며 코너를 알차게 구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2부에서 다루어질 내용을 궁금하게 만들었다. 또 성김 대표를 통해 경색된 남북미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해보게 하였다. 전체적으로 시기상 적절한 인물을 잘 선택해서 다루었고 그에 맞는 게스트도 잘 섭외해 흥미롭게 전개되었다.

프로그램	정책은 머니? 혜택은 뭐니?		
방송일자	2021. 6. 20.	시청률	0.026

### 【총 평】

‘어촌뉴딜 300, 새로운 어촌 정책’ 및 ‘신병영시대, 달라진 군장병 지원제도’를 각각 정리하여 전해주었다. 새로운 어촌 정책에 있어서는 어촌뉴딜300, 수산공익직불제, 친환경 부표 확대 지원에 대해 다루고 달라진 군장병 지원제도에 있어서는 병역진로설계서비스, 2021 달라진 병역 정책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초반에는 다수에게 잘 알려진 성공 사례를 제시하고 해당 정책과 혜택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키워드&트렌드>로 마무리 하는 내용 구성은 시청자의 이해도를 제고하였다.

### 【구성 및 내용】

‘어촌뉴딜 300, 새로운 어촌 정책’에서는 어민과 도서민 보호뿐만 아니라 바다 환경 살리기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소재였다. 300년 만에 여객선이 입항된 만재도를 사례로 들어, 여객선 접안 시설이 없던 시절에는 바다 중간에서 배를 갈아타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수부가 40m 길이의 여객선 접안시설 등을 조성하면서 만재도와 목포 노선이 생겼다는 정보 전달을 통해 어촌뉴딜 300 사업의 성과를 알려주었다. 또 올해 어촌뉴딜 300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된 수산공익직불제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지원책, 대상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였다. 또한 덧붙여 소개된 친환경 부표 확대 지원 정책은 해양 오염 해결을 위한 시의적인 과제로 관심을 모았다. 양식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는 해양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거론된다고 하는데, 이에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부표를 확대 지원한다는 정보를 소개했다. 내구성 및 안전 시험을 통과한 친환경 부표를 구입 시 7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유익한 내용을 안내하였다.

다음으로는 달라진 군장병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병역진로설계서비스를 소개했다. 군 병력을 바탕으로 성공을 거둔 왓차의 박태훈 대표 사례를 제시해 군장병 병역 정책의 순기능과 필요성을 알렸다. 병역진로설계서비스는 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학생들 인터뷰로써 청춘디딤돌 병역진로 설계 사업의 효과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덧붙여, 2021년 달라진 병역 정책을 안내하여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이 폐지되었다는 점과 1~3급은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대상이 된다는 정보를 소개하였다. 더불어 경제적 취약자라면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하고 육군, 공군 조리병 지원자격이 완화된다는 정보도 전달하였다. <키워드 &트렌드>에서는 군대 식량이 프랑스는 치킨바스크, 마카로니, 소시지 리조또, 샐러드 등 4종의 대표 주식 위주로 구성된다는 등 나라별 전투 식량 트렌드를 소개해 흥미로웠다.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 지원 정책과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등을 소개해 대상층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하고 각종 정책의 필요성과 순기능을 알려 인상 깊었다.

프로그램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방송일자	2021. 6. 20.	시청률	0.002

### 【총 평】

70여 년 전 500여 명의 억울한 민간인 희생을 낳은 충북 영동군의 무고한 죽음의 비극 '영동 민간인 희생 사건'을 다뤘다. 한국전쟁 전후 억울하게 희생된 영동지역 주민들의 억울하고 분통한 사연의 증언을 가족들을 통해 전해주었다.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국가 보안법 위반 형무소에 재소자로 갇혔던 사람들을 군경이 집단학살한 가슴 아픈 가족들의 증언을 전하여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해하며 오랜 시간 그리워하며 지냈을지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 【구성 및 내용】

한국전쟁 기간 중 희생된 보도연맹 구성원들의 억울한 죽음에 관해 다루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보도연맹원을 포함한 예비검속 대상자들이 당시 경찰에 의해 연행되거나 소집통보를 받고 출두하였다. 그러다 전세가 어려워진 7월 초중순경 경찰 등에 의해 집단 사살된 일이었다. 그 중에서도 영동 좌익 폭동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주인공의 사연과 보도연맹 가입 혐의로 아버지를 잃은 사연을 소개했다. 아버지의 희생에 대한 증언 사례와 함께 아버지의 유품인 옷솔과 도장, 아버지가 쓰시던 책상을 간직하며 추모하는 모습이 애절하고 안타까웠다. 어렸을 적 아버지와의 추억을 한가지만으로 기억하고 그 이후로는 아버지가 희생되고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아무것도 없음을 전하였다. 형무소에서 재소자로 있다가 이유도 없이 집단학살 되었다는 증언을 전하여 안타까움을 전했다.

또 다른 주인공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집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집수리를 하며 아버지 생각에 눈물을 쏟은 사연을 소개하였다. 백발노인이 된 아들이 지금도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으며 보도연맹 가입 후 아버지가 형무소에 수감되어 학살로 희생되었다고 전했다. 유족들은 모두 노인이 된 자녀들이었지만 아직도 희생된 가족에 대한 회환과 그리움으로 가슴 한 켠이 얼룩져 있었다. 지금이라도 화해위원회를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다고 전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희생이 확인된 희생자는 175명. 추정되는 자는 8명. 이 외 부역혐의 등으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는 800여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희생된 가족들에 대한 애절한 사연을 가진 유족들의 인터뷰로 이어지는 가운데 유족들은 슬픔에 복받쳐 눈물과 원통한 감정이 분출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다. 그러한 사연과 슬픔을 경험해보지 안타까운 사연임에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우리 국군과 경찰에 의해 사살된 사람의 원혼을 달래고 잘못된 역사를 뒤늦게나마 바로잡으려는 희생자 가족과 후손의 몸짓이 애절하게 느껴졌다. 이에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는 우리 사회의 국가로부터의 억울한 폭력과 탄압에 대한 진실과 정의를 밝히고 바로 세워 방송의 기능으로써 진정한 역할을 다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1. 6. 20.	시청률	0.003

### 【총 평】

사회양극화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잘 사는 포용사회, 사회안전망 강화’를 타이틀로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와 고용안전망 확충, 고용보험제도의 확대시행을 해법으로 제시하였다. 정책적 제언은 물론 솔루션 제시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상호보완으로 상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점이 인상 깊었다.

### 【구성 및 내용】

‘잘사는 포용사회,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 양극화에 따른 소외된 근로자가 없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개념정립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계층, 디지털 격차의 정도와 문제점,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방안, 고용보험제도와 고용안전망 등을 다뤄주었다. 안전망 강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판 뉴딜의 큰 축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각각 90만개, 6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는 정보를 전했다. 디지털, 그린 뉴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전국민 고용보험가입,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소개하였다. 또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정규직 등 고용 취약 계층에게는 더욱 가혹한 상황임을 전하며 이에 여행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극복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점도 긍정적이었다.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해서도 소개했는데 디지털 격차의 가장 큰 차이는 연령별 격차를 통해 보면 70세 이상의 경우 스마트폰 보유율이나 인터넷 이용률이 다른 연령에 비해 낮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스마트뱅킹 대신 은행창구를 방문하는데 이들에게 스마트뱅킹 교육을 시켜준다면 은행의 효율화 또한 도모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디지털 전환은 세계적 흐름으로 급격한 변화로 인한 사회적 배려가 요구된다고 이야기하였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한정하지 않고 취업을 원하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할 경우 상담사가 희망취업 관련 상담을 거친 후 적절한 교육과정을 통해 취업알선을 해주고 생계지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는 정보도 안내하였다.

청년들의 일자리 회복 방안으로 크게 두 가지 방안을 들었는데 유망한 종건·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청년들과의 매칭이 요구된다는 점과, 각 지자체에서는 그러한 매칭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더불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의 관계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상승시켜야 하는 관계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1. 6. 20.	시청률	0.000

### 【총 평】

“코로나 백신 천만 명 돌파! 일상으로 더 가까이” 편에서는 지난 2월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올 9월까지 전 국민의 70%를 접종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수정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 현재 젊은층에서 불고 있는 잔여 백신 신청자 폭주와 백신 효과에 대한 변화된 믿음 현장과 접종 인프라 확대가 가져다 준 변화에 대해 다뤘다.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는 민간 접종 인프라를 취재하여 프로그램의 의도를 명쾌하게 제시하였고, 정부가 계획한 올 상반기 1300만 명 접종 목표 수정 근거를 제시하여 신뢰도를 높였다.

### 【구성 및 내용】

백신 접종에 관한 내용을 접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좀 더 백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백신접종에 대한 참여 의지를 독려하는 의미가 있었다. 적재적시의 자료 구성과 잔여백신 신청 본인 재연 화면 구성이 전체 맥락을 이어나갔고 잔여백신 접종 사례와 대규모 백신 접종을 위한 신속한 의료 인프라 구축 사례 현장 취재 등은 매우 시의성 있었다. 한 때 접종률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등 부정적인 소식들도 빼놓지 않고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하면서 지금의 상황과 비교시킨 점도 상당히 주목할 만했다. 먼저 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하는 화면이 준비되어 전체적인 이해를 도왔다. 이어 초창기에 제시됐던 구체적인 달성 목표와 월별 접종 계획, 그리고 접종률까지 일련의 과정을 통해 희망적 미래를 제시한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코로나19가 발발한 초기의 상황과 백신 도입된 이후 여러 가지 불안감이 조성된 초기 단계부터 점차적으로 백신 접종 참여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까지가 순차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이해를 도왔다. 인구대비 접종률도 빠르게 높아졌고 2주 사이에 상승률이 높아짐에 따라 젊은 층의 백신 접종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신청하고 나섰던 부분에 대해 사례를 소개하였다. 젊은 층도 잔여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발 빠르게 어플을 통해 예약하고 실제 접종까지 완료한 사례를 들어 젊은 층들의 백신 접종의지를 보여주었다. 또 상반기 백신 목표 달성 요인으로 대규모 접종을 위한 신속한 기반 구축과 접종자들에 대해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제대로 추진되어 나갈 수 있었음을 전하여 접종 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통찰을 하여 전하였다. 지역의 어느 한 식당에서는 6월 한정 코로나19 극복 이벤트로서 코로나 백신 접종 확인자가 방문할 시 무료 음식을 제공되는 행사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의 그동안 어려움을 익히 잘 알고 있음에도 음식 무료 제공 이벤트로 백신 접종의 동력이 됨은 물론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고무적이었다. K-방역에 이어 코로나19 백신접종 참여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백신 극복에 대한 기대와 일상으로 복귀 희망을 전해주는 시간이었다.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21. 6. 20.	시청률	0.057

### 【총 평】

관리가 어려운 전주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관리번호를 부여해 보수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됐다는 우수사례와 굴다리 폐쇄로 주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에서 민원제기 후 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현안이 해결된 경기도 화성시의 사례가 소개돼 주목도를 높였다. 취재자가 출연해 민원이 제기된 현장의 생생한 화면을 보고 현장의 문제점과 해결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이 소구력을 높였다.

### 【구성 및 내용】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넓은 공원에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관리 효율성을 높인 사례를 소개하였다. 전주월드컵경기장 공원의 환경을 살펴보며 휴식 공간으로써의 가치를 알리고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해당 장소는 '축구경기장 90개 이상이 들어설 수 있는 면적'에,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보조경기장, 골프장, 풋살장, 농구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들어서 있고 기타 시민 휴식공간이 있는 장소였다. 이렇게 큰 시설에서 '안전, 고장 민원'을 해결한 사례라서 그 자체로 호기심을 자극했고 시청 내내 몰입을 유도하였다. 사후 관리와 함께 다른 자치단체에서의 벤치마킹 권고, 주민 만족도까지 살펴보는 구성이 시청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시설물에 관리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신고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유연하게 사안을 접수할 수 있다'는 소개가 관리자로부터 나온 점이, 설득력 있어 초반부터 강하게 관심 끌었다. 해결의 물꼬를 트게 된 계기를 제시한 점이 인상 깊었는데, 현장 직원의 간단한 아이디어가 시설관리공단의 난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민원제기가 발생함에 따라 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서 고충이 처리되는 과정이 현장을 중심으로 상세히 소개되었다. 특히 신고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유연하게 사안을 접수할 수 있다'는 소개가 강하게 관심을 끌었다.

두 번째 사례로 화성시 봉담읍 덕우리와 덕리를 잇는 굴다리 폐쇄로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소개했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소재하는 덕우리와 덕리는 기존 왕래가 잦고 생활편의시설을 공유하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두 마을을 이어주던 굴다리가 국도 확장공사로 인해 지난 겨울 폐쇄되면서 1km 이상 우회하게 되면서 주민들의 통행은 물론 농기계의 이동 또한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행정당국은 양 마을이 하나의 생활권임을 인식하고 국토관리청과 조정에 나서 현장 조정회의를 진행했고 이 결과 부체도로 신설에 합의하고 교통 안전대책도 마련하기로 하였다고 소개하였다. 주민 인터뷰와 현장 점검으로써 굴다리 폐쇄로 우회로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을 보여주어 조정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을 만나 부체도로 개설 작업 및 조정 사항을 언급하여 해결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